

화순군, 농촌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수돗물 공급

환경미화원 등 시설 근무자 근무환경 개선

화순군은 오는 9월 완공을 목표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상수도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화순군은 최근 가압펌프 시험 등 시험운전을 끝내고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무사히 통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상수도 보급 사업은 상수관로(D75mm) 3.69km와 가압장 2곳을 설치하는 사

업이다. 이 사업으로 한천면 가암리 마을까지 매설된 상수도 관로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까지 연장된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총 130여 명(상주인력 30·환경미화원 100)이 근무하는 시설이다. 산간지역이라 지하수가 부족하고 최근에는 수질까지 나빠져 생활용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타도가 높은 지하수를 오래

사용해 샤워시설, 급수전, 타일 등이 낡고 부식이 심해 상수도 공급이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다.

이에 화순군은 올해 1회 추경에 12억 원을 긴급 편성했고 지난 5월 공사를 시작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등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영광군, '한가위 명절선물전'서 찰보리 가공제품 선보여



영광군은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열리는 '2019 한가위 명절선물전'에서 우리지역 찰보리 가공제품을 선보인다.

메세E&D와 대한급식신문사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명절선물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전통산업 발굴 및 우수 농수축산물의 판로 확대

를 위해 일반 소비자와 기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 영광군은 '영광찰보리6차산업화추진단' 소속 12개 업체의 영광찰보리 가공제품 30여 품목을 전시·홍보하여 전국 유일 보리특구인 영광군과 영광찰보리 제품의 인지도 및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전국 유일의 보리산업특구인 영광군의 우수 찰보리 가공제품을 일반 소비자 및 관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 우리군 우수 제품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함평군, 농어가수당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자 6708명 선정

함평군은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나윤수 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함평군 농어가수당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농어가수당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15명의 심의위원 전원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위촉직 신규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올해 농어가수당 지원대상자 6,708명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지급대상자는 지난 한 달간 진행된 자격검증 및 심의절차에서 부적격 사유 없이 모두 통과한 자들로, 오는 26일부터 올해 3분기분 수당 30만 원씩 수령 받게 된다.

수령방법은 신분증 지참 후 수당을 신청한 읍·면 관할 지역농협에 방문하면 되며, 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인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된다.

나윤수 군수 권한대행은 "수입농·수산물 개방 등 지역 농어가 여건이 날로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우리 함평이 전국 최초로 농어가 수당을 지급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농어가수당 지급과 함께 실질적 농·어가 지원 시책을 지속 발굴해 농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루빨리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함평=김평준 기자



장흥군버섯산업연구, 간담회 개최

지역 특산자원 경쟁력 향상 연구협력·교류 활성화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지난 6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장흥지역 연구기관과 블루이코노미(Blue Economy, 청색경제) 실현 및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과 한국한약진흥원 한약자원개발본부, 전남천연자원연구센터,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R&D 사업을 공유하고, 지역 특산자원의 공동연구를 통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의 추진업무 및 연구성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공동연구 창출 및 기술개발 협력방안에 대한 토의도 가졌다.

이들 기관은 최근 전남도가 발표한 블루이코노미 실현을 위해 ▲지역 특

산자원을 활용한 R&D 사업 발굴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개발 협력 ▲연구성과의 산업화 및 부가가치 창출 ▲학술정보 및 인프라 교류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정과제인 장흥·화순·나주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 기관의 연구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장흥에서 10월에 개최되는 2019년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학술포럼도 공동개최하기로 했다.

방지역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장은 "장흥군은 4개소의 특화된 전문연구기관이 설립·운영되고 있어 블루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최적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토의된 다양한 의견은 체계적으로 정리해 연구기관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 보리 재배농가 시름 덜기 나서

과잉생산 대응 농가 희망물량 전량 구매·차액 보전

장성군이 작황호조로 과잉 생산된 보리 재배농가의 시름을 덜기 위한 대응에 나선다.

지난겨울 온난한 날씨와 봄철 적정 강우 등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올해 보리작황이 호조를 보였다.

장성군은 농식품부, 농협중앙회와 협의하여 작황 호조로 과잉 생산된 2019년산 보리 중 계약재배를 하지 않은 농가의 매입 희망 물량 496톤 전량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성군은 농가의 소득보존을 위해 보리매입에 따른 농협의 구매금액과 주정용 판매금액의 손실된 금액 2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구매는 선제적인 처리를 위해 지역농협에서 구매 후 주정용으로 처리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매는 이달 말 안에 진행될 예정이다.

장성군의 구매 규모는 496톤이며 보리 1가마당(40kg 기준) 구매단가가

는 쌀보리 27,000원이다. 장성군의 보리 계약재배 면적은 164ha이다.

하지만 보리 파종기와 생육시기에 이어진 최상의 기상여건으로 10년 만에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여 계약재배를 하지 못한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보리농사가 풍년임에도 생산량 과잉으로 기배하지 못하는 보리 재배농가의 고통을 덜기 위해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 전부를 구매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가의 소득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군, 남도 청소년 랩 페스티벌 개최



담양군은 오는 11월 2일 담양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남도 청소년 랩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가 갈래인 가사시의 문학적 의의를 되살리고 자연스런 유희와 서정적 감성을 현대에 계승·발전시키는 물론 전통문화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광주의 중·고등학생 및 청

소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담양군 홈페이지 문화행사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가사문학관 이메일(park0915@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경연작품은 작사 및 작곡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기존 가사 작품(면앙정가, 성산별곡, 관동별곡 등)을 활용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참가자 경연방식은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본선 경연으로 실시되며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2명) 각 200만원, 우수상(3명) 각 100만원, 인기상(4명) 각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인문학교육 특구 지정에 따라 청소년의 인문학적 사고를 높이는 데 지역의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하고자 한다"며 "내년에는 전국 행사로 승화시켜 가사문학이 생활 속의 현대적 대중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 광주 수영선수권

연계 '팸투어' 실시

화순군이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화순-나주 팸투어에 마지막까지 인원을 쏟고 있다.

군은 14일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찾아온 외국인 36명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했다. 광주시 선수촌을 출발해 국립나주박물관을 거쳐 화순의 천불전탑 운주사를 둘러보는 코스로 진행했다.

군은 세계 5대 스포츠 빅 이벤트 중 하나인 세계수영대회와 연계해 외국인에게 '관광 화순'을 홍보하고 인지도 높이기 위해 팸투어를 계획하고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팸투어는 세계수영대회와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화순의 대표 관광자원 중 외국인 선호도와 진입도가 높은 관광명소로 코스를 구성하고 우리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재미를 더한다.

화순=박순철 기자



광주교육!

아이들만 바라보며
함께 가겠습니다.